

신안 압해읍 고이도 '차조의 섬' 육성



신안군은 압해읍의 작은섬 고이도를 '차조의 섬'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 200여명 작은섬...차조 재배 20ha까지 늘려
“차조 활용 가공품목 다양화 관광객 수요 대처”

고이도는 인구가 200여명 살고 있는 작은 섬이지만 예로부터 집집마다 차조를 재배 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농업기술센터 잡곡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면적을 20ha까지 늘려 명실공히 차조의 섬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한방이나 민간요법에서 차조는 소화흡수가 잘되어 대장을 이롭게 하며 산후 회복과 혈액생성을 촉진, 당뇨와 빈혈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건강성 잡곡으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또한 고이도는 신안군의 역점시책인 '사계절 꽃피는 천사섬 신안!' 일환으로 조팝나무 공원까지 조성하고 있어 향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차조 소포장 상품이 이어 차조를 활용한 떡이나, 막걸리 등 차조를 활용한 가공품목을 다양화해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적극 대처 하겠다”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섬수국축제' 취소

신안군 “내년 더 알찬 준비”
신안군은 코로나19의 다발적 연쇄감염 전국 확산 조짐에 따라 우리 지역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6월 26일 개최 예정이었던 '섬수국축제'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올해가 두 번째로 개최 예정이었던 '섬수국축제'는 13.14ha 수국공원에 수수하지만 꽃다발 속도 한송이로 주인공이 되는 수국을 주제로 형형색색 다품종의 14만본의 200만송이 수국을 비롯해 느티나무 등 3,000주의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었다. 지난해 6일간 진행된 섬수국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1만2천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신안군의 대표적인 섬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섬수국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박영성)은 “여름의 상징인 섬수국축제 개최를 위해 위원회 회원 모두가 앞장서서 축제를 준비해 왔는데 아쉽게도,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올해 축제는 코로나19의 비수도권 지역사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불가피하게 축제를 취소하게 되었으나 내년 에 더 알찬 섬수국축제를 준비하겠다. 신안군 도초도의 수국공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영암군, 드림스타트 집콕노리 후속 '우리가족 주말이야기' 호평



영암군은 드림스타트 코로나19 극복 집콕노리 후속으로 '우리가족 주말이야기'를 운영 중이다. '우리가족 주말이야기'는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에게 스포츠용품 등 교구를 지원하여 주말동안 가족과 함께 만들고 운동하며 즐기는 소통거리를 제공하여 아이들과 양육자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은 오이·토마토·상추를 직접 키우고 가꾸는 텃밭친구, 배드민턴·야구·축구를 건강하고 마음을 키우는 튼튼운

동, 바둑·할리갈리·젠가로 EQ·IQ를 쑥쑥 키우는 수학보드 머리를 맞대고 케이크를 만들어 가족과 답답함을 나누는 훌레이커리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주말동안 아이들과 주 양육자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한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올바른 가족관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광산 동부 재배농가 종자공급 및 재배기술교육 실시

“이렇게 배로 습해 예방해야”
영광군은 17일부터 24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영광산 동부 약정 재배농가 108명을 대상으로 '영광산 동부 종자 공급 및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광산 동부 자급체계 구축사업

은 영광모시인쇄공원의 소 재료인 동부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여 지리적표시품과 모시인쇄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1 현장기술교육으로 진행되고 영광산 동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최근 적용된 동부 적

용약제 설명을 중심으로 하며 재배농업인에게 종자를 무상 공급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동부는 양과, 담배 등 재배 후 틈새 소득작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재배 시 습해에 약하므로 배수가 잘되게 이랑재배를 해야 하며 개화전과 후 적용약제를 사용하여 진딧

물, 노린재, 나방류 등 병해충을 방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또한 “영광산 동부의 고품질, 다수확 목표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 기술 컨설팅 및 병해충 방제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1억 2천만 원 예산 확보

영광군은 생활권 주변에 위치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를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군민안전 위험목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접수된 위험목 988본 중 651본이 제거됐으며 이중 166본이 2020년에 제거됐다. 군은 올해 군비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산림공원과(350-5352)에서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거쳐 위험목을 제거하고 있다. 사업 신청 가능지역은 인력이 제거할 수 있는 곳이나 굴삭기 또는 고가사다리차 등 중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군은 올해 하반기까지 잔여 위험목을 제거해 군민안전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목포시, 방심은 금물...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당부

전국 확산 우려 커져
현재 목포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미발생 기간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주의와 경계심이 소홀해지면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확진자가 대전, 세종, 충남, 전북 등에 이어 광주에서 까지 발생하며 점차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규모 종교시설이나 방문판매업체 등을 통한 집단감염과 무증상 연쇄감염 이라 더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목포시는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도권 방문 및 밀폐된 공간이나 많은 사람이 붐비는 곳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의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이나 단체의 행사, 소규모 모임 시 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개인 간 거리 두기 등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수확은 생애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

함께해요!